

몽골, 어떻게 Make Change 하고 있나?



정순훈(서울무악RC)
3650지구 한몽친선위원장
2011~ 몽골 후레대학교 총장
2007.05 제3대 한국어세계화재단 이사장
2006.12~2011 제5대 배재대학교 총장
2005.10 아시아대학총장포럼 초대 의장

몽골에 간지 6년 반이 지났다. 몽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몽골화 되었는지 몽골이 편하고 좋아졌다.

한반도 면적의 7.5배나 되는 땅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지하에는 세계 제2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석탄을 비롯하여 구리, 금, 원유, 희토류 등 80여 종의 지하자원이 있어 세계 6대 자원 부국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몽골은 초원과 사막만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우리나라 면적보다도 넓은 숲이 있다. 숲에는 아름답고 소나무가 수십 킬로씩 펼쳐져 있다.

수도인 울란바타르 시내에도 숲이 울창해 길을 잃고 조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이다. 농토도 광활하고 비옥하여 내가 직접 지은 70만평의 해바라기 농장에서 나오는 해바라기는 비료를 주거나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해바라기 한 송이 크기가 솔뚜껑 만큼 컸다. 백두산 천지 같은 산정호수를 포함하여 곳곳에 그야말로 바다같은 호수들이 즐비하다. 바다가 융기하여 생긴 대륙이라 세계에서 제일 영양가가 풍부한 소금이 있는 소금 산도



많다. 산과 초원, 사막, 공기, 별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만하다.

몽골은 구소련의 영향을 받던 나라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착화 시키고 있는 나라이다. 다당제를 실시하여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구 공산권에서 흔히 있는 독재자가 없다. 아직 실천적인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곳곳에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식 정치, 경제 체제를 이룬 나라이다. 인구 300만에 50여개의 방송국이 있을 정도로 언론도 활발하다. 대학도 한때는 200개나 되었다. 외환을 포함한 경제활동도 매우 자유롭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다.

자연이 사람들의 생각을 만든 것일까? 끝없는 초원에 울타리가 없듯이 도대체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작은 나라에 하루에도 몇 개씩 정부기

구가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건물이 들어선다.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엄두도 내지 못할 ASEM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개최하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도해보는 것 같다. 경계의식이 없어서인지 언어능력도 탁월하다. 교실에서는 한국학생들은 알지도 손을 들지 않는데 몽골학생들은 몰라도 모두 손을 든다. 한국을 비롯하여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많은 몽골인 들이 노동, 유학, 결혼으로 나가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몇 번씩 결혼과 이혼을 거듭해도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모험심이 작은 인구에도 인류역사상 세계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6년 반전 처음 왔을 때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다.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던 도로는 먼지 투성이던 비포장에서 가로등 까지 갖춘 포장도로로 바뀌고 도로 양쪽에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수시로 끊어지던 전기와 수도물이 이제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3개월씩 가던 공무원들의 여름휴가가 1개월로 줄어들고 1인당 100백만 투그릭(오십만원)씩 준다는 등의 선거 공약도 법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시내에는 말 대신에 자동차가 즐비하여 5부제를 시행해도 늘 차가 밀릴 정도로 차가 많다. 말을 타고 양떼를 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양을 몬다. 말 타고 달리듯 모든 일들이 빨리 변화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변화에 동참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그들의 변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이 아닐까? 사회주의식 우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식 교육으로 make change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도 로타리의 네가지 표준을 생각해본다.